

건축계소식 / 99

현상설계경기 / 104

해외잡지동향 / 110

리포트(제11차 아카시아 포럼) / 117

건축계소식 archi-net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수상작 전시회 개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조성률 건축사(건축사사무소조성률도시 건축 대표)가 설계하고 삼능건설(주)가 시공한 의재미술관이 국내 준공건축물 들을 대상으로 한 2001한국건축문화대 상에서 영예의 大賞을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의재미술관 외에 본상 6점, 입선 작 17점 등 준공건축물부문 24점과 신 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 33점 등 총 57개의 작품이 입상했다. 대상 수상작품인 의재미술관은 광주 동

구 운림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연면 적 1,562.27㎡, 건축면적 816.92㎡ 규 모의 전시문화공간으로서 조선말기 화 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을 비롯한 국내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연속의 미술관 건축물이다. 특히 이 작품은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 주변 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 고 자연지형의 지리적 형상을 수용하면 서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어 순환하는 건 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란 평 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일 금호아트홀서 열린 시 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작의 설계자인 조 성률건축사가 대통령상을, 시공자인 삼 능건설(주)과 건축주 (재)의재문화재단 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이날 은평 구립도서관 등 본상 건축주와 입선작, 계 획건축물부문 입상자들에게는 대한건축 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각 각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 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 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 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건축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제도로 자리 하고 있다.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 부활

건교부 규제위 심의거쳐 내달 시행계획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 을 추진할 경우 전체 가구의 15~25% 를 18평 이하(전용면적 기준)로 반드시 지어야 한다.

또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 지원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금리도 5%까지 인하된다.

건교부는 지난 9일 서민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의무비율안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제도입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기준의 경우 현행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가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비율 부활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경우 해당 시·도가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과 인천 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 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 일부 등 16개 지역으로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 지침시행 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단지 및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민간택지와 재건축사업의 경우 18평 이하가 20~30%, 18~25.7평 40~45%, 25.7평 초과 25~40%가 적용돼 오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직후인 98년 1월 폐지됐으며 이번 조치로 3년 9개월만에 부활된 셈이다.

미래주택 심포지엄

11월 16일 연세대백주년기념관에서

연세대 밀레니엄 환경디자인연구소는 11월16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래주택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현수 연세대 교수와 켄트라센(Kent Larson) MIT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가사로봇과의 발전 현황과 미래(백윤수·연세대 교수) △노인복지와 의료주택의 미래(손명세·연세대 교수) △인간친화 복지로봇 현황과 미래주택(변중남·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미래주택과 사이버 인간(황상민·연세대 교수) △멀티미디어 환경과 미래주택(최윤철·연세대 교수)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02-3147-1192)

홍익대학원 정기 전시회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 PARK주택전시관에서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간디자인학과 정기 전시회 '2001인테리어스페이스 비엔날레'가 오는 20일(금)부터 11월1일(목)까지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1 PARK 주택전시관에서 열린다.

'Rebirth of Space-Anti Space' 라는 주제의 이 전시회는 기존 공간을 분석, 해체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1:1 크기의 실험적 공간 설치 작품전이 될 것이라는게 주최측의 설명이다.(02-320-1934)

목구조관리 기술자교육

11월 5일부터 4주간 실시

산림조합중앙회는 목구조물의 관리기술 향상과 안전관리에 기여할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구조관리기술자 과정을 개설한다.

오는 11월5일부터 12월1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정원은 20명이다.(02-419-9419)

한·미건축단체간 협정 체결

향후 국가간 협상 지침 마련

한국건축단체연합(FIKA:Federation Institutes Korean Architects)은 존 디 앤더슨(John D Anderson)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회장을 초청, 지난 10월 15일 조선히otel에서 한·미건축단체간 협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정은 양 단체의 각종 건축관련 정보의 교환과 이해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무역 대표들이 국가간 협상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지침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조약을 위한 사전 작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은 먼저 한국건축가협회와 미국건축가협회가 협정을 체결하고 차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정식으로 발족하면 공식협의의 대상을 이 단체로 바꾸게 된다.

한편 존 디 앤더슨 회장과 미국건축가협회 원로회원들은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장관,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만나

국내외 건축계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02-744-8050)

2001건축가미술전 개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우리협회 전시실에서

건축가미술동호회(건미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건축가미술전이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우리협회 1층 아키텍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건미회는 출품작을 모집하는데, 참가대상은 기존의 건미회 회원뿐만 아니라 건축에 종사하면서 미술 창작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작품은 회화(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판화, 건축드로잉 등이고, 출품희망자는 작품슬라이드 1매, 작가인물사진 1매, 작가약력, 출품료 20만원을 10월 22일까지 이공건축(이관직)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2-873-2020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11월 9일
동아시아 의료복지시설의 전망'을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회장 이특구)에서는 오는 11월 9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의료복지시설의 전망을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일반 3만원, 회원 2만원, 학생 1만원이다. 참여하는 연사는 다음과 같다. 문의: 02-

- 2243-6805 <http://www.ikiha.org>
- 중국/ Zhou Rou Qi (중국 시안대 교수):중국 의료시설의 최신 동향
- 일본/ Masao Aoki (M.A.Y 건축연구소 대표):일본 병원건축의 최근 이슈들
- 미국/ Kevin Kim(AIA,Gresham Smith & Partners 부사장/수석디자이너): 서울대학부속병원 마스터 플랜-사례연구
- 이특구(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병원건축의 최근 동향
- 박재승(한양대 교수): 여성전문병원의 최근 동향
- 양내원(한양대 교수): 국내 종합병원 리모델링 사례 발표-강북삼성병원
- 권순정(아주대 교수): 한국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 및 전망
- 최광석(대불대 교수): 의료시설의 계획과 디자인의 변화전망
- 채철균(중앙대 강사): 알콜 중독사를 위한 의료시설의 최근 경향

「건축과 나」展 개최

10월 31일부터 갤러리 아티그램에서

월간 건축인 포아(POAR)가 주최(기획:전진삼)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건축과 나」전이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갤러리 아티그램(구 수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일상과 괴리되어 있는 건축을 되짚어보고자 건축가들이 시선을 두고 사는 도시공간과 그 속에서의 삶의 형태 또는 일상의 기호에 관심을 표현하고자 기획됐다. 참여작가들은 1960년대 출생으로 한정하고 독립적 성향이 강한 10명의 건축가와 1명의 사진작가로 이루어졌다. 10명의 작가가 하루씩 전시장

전체를 사용하여 10일간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매일 다른 전시체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월 10일 세미나 강평이 있으며, 이종건(건축비평가,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교수),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원장, 몸철학, 영화비평), 김복기(월간 ART편집주간)씨가 참여한다. 전시기간동안 참여작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freechal.com)를 통해 당일 전시내용을 볼 수 있다. 문의: 월간 건축인 02-519-6520

- 10월 31일 / 김태철 / A Space in the Space
- 11월 1일 / 신동훈 / 꽤
- 11월 2일 / 박민철 / 한국학파의 '기생'
- 11월 3일 / 이창기 / 시물라르크
- 11월 4일 / 강병국 / 걸리버의 눈
- 11월 5일 / 윤용원 / 명필름
- 11월 6일 / 문 훈 / CHORA-TAO
- 11월 7일 / 김동원 / 네트워크 시대의 모순과 건축
- 11월 8일 / 최 욱 / everyday life as architecture
- 11월 9일 / 장윤규 / 잡종만들기 Hyper-Text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

11월 16일까지 접수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 및 인원

- ◇ 석사과정
 - 건축설계학과 (2년과정, 3년과정) : ○○명
 - 실내건축설계학과 (2년과정, 3년과정) : ○○명명
- ◇ 박사과정

- 건축설계학과 : ○명
- 실내건축설계학과 : ○명

지원자격

◇ 석사과정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 (1) 2년과정 : 건축설계학과의 경우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 전공자
실내건축설계학과의 경우 실내디자인 또는 실내건축 전공자
- (2) 3년과정 :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디자인 또는 실내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

◇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구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과 장소

- 특별전형 : 2001년 9월 17일(월) ~ 10월 5일(금)
- 일반전형 : 2001년 10월 15일(월) ~ 11월 16일(금)
- 09:30 ~ 17:00 (토·일요일 제외)
- 장소 :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 02)450-3286~7

구술시험 일시 및 장소

- 특별전형 : 2001년 10월 8일(월)
09:30부터, 건축전문대학원
- 일반전형 : 2001년 11월 24일(토)
09:30부터, 건축전문대학원

합격자발표

- 특별전형 : 2001년 10월 12일(금)
14:00,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 일반전형 : 2001년 11월 30일(금)
14:00,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http://www.konkuk.ac.kr/~gsakku>)

구비서류

- ◇ 석사과정
- 입학원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작품집 (portpolio) - 원서접수시 제출 (다만 건축설계학과 3년과정 지원자는 제외함)
- 반명함판사진 (4매) - 입학원서에 첨부
- 현역군인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허가서
- ◇ 박사과정
- 입학원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대학원 석사학위 증명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작품집 (portpolio) - 원서접수시 제출
- 반명함판사진 (4매) - 입학원서에 첨부
- 현역군인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허가서

문의: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02-450-3287)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

11월 29일까지 접수

- ◇ 모집전공
건축설계전공(5학기), 역사/이론/비평전공(4학기)
- ◇ 전형방법
서류심사, 영어시험, 면접, 작품집(단, 역사/이론/비평전공 지원자는 제외)
- ◇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건축(공)학과 전공자
- ◇ 전형일정(예정)
- 원서교부 : 2001. 11. 19(월)~11월 29일(목)
- 건축디자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Download
- 원서접수 : 2001. 11. 26(월)~11월 29일(목) 09:00~17:00
- 전형일시 : 2001. 12. 1(토) 오전 9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Download)
- 사진(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 반신형 3×4cm) 3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전학년 성적증명서(평균평점표기-4.5 만점기준)
- 작품집(단, 역사/이론/비평전공 지원자는 제외)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문의: 02-2290-0258, 9
홈페이지 <http://hgsa.hanyang.ac.kr>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가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호서대학교 조형과학관에서 열린다.

행사일정

- 10/22 - 건축설계학 전공/건축공학전공 졸업작품전 오픈(12시)
호서대 조형과학관 4층 전시관
- 10/23 - 공개크리틱/호서대 조형과학관 4층 전시관(12시)
- 특별강연회/한울건축소장 이성과/작가론과 상황론
호서대 조형과학관 103호(4시30분)
- 10/27 - 2001학년도 대한건축학회 학생 우수 작품전
호서대 교직원 회관 1층(12시)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회
호서대 1공학관 5층, 자연과학관 4,5층(10시30분부터 17시)

서울건축학교 워크숍

12월 7일까지

서울건축학교에서는 가을 정기워크숍 기간중에 특별기획으로 8인의 건축가 세미나가 있다.
매주 금요일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건축학교 강의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건축가세미나

- 1102 서현(서울대 건축학과, 동대학원, 콜롬비아 건축대학원, 한양대 건축대학원 교수)
- 1109 헬렌박(하버드대 물리/건축과, 하버드대 건축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 1116 유건(한양대 건축공학과, 버클리대학원, 하버드 건축대학원, 사상건축대표, 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 1123 김병윤(한양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aa school, 백제예술대 교수)
- 1130 조민석(연세대 건축공학과, 콜롬비아 건축대학원, Cho Slade architecture 대표, 서울리서치그룹 파트너)
- 1207 켄민(남부캘리포니아대 건축과, 하버드 건축대학원, 에스케이엔디자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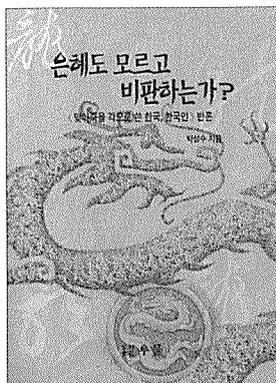
신간안내

은해도 모르고 비판하는가?

◇은해도 모르고 비판하는가?

한·일간에 역사 왜곡 등으로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은해도 모르고 비판하는가?」를 출판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시에 36년간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또한 20년 가까이 신구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전 박성수 건축과장(서울시 도봉구청)이 일본인 이케하리(池宗衛)가 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한국인 비판」에서 우리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왜곡 비판한데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여 많은 고증과 합리적 논리로서 반론을 제기하고, 아울러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인 내용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역사·사회 및 윤리에 대한 참고교재와 일반 국민의 교양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수 지음 / 217쪽 / 9천원 / 도서출판 우물 펴냄(043-651-511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9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9-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6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광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9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9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